

4월입니다.....3월에 입학한 1학년 어린이들
도, 한 학년 더 올라간 어린이들도 새 학기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겠지요? 그렇다면 휴일에 새로 사
권 친구 혹은 선생님 손잡고 학교 밖으로 나가 보세
요..... 날씨도 좋고, 예쁜 봄꽃들도 여러분들
을 반길 것이고 친구, 선생님과 관계도 더욱 돈독
해질 테니까요.....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미술관에 들러 그림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보세요.....교실 안에서 국어, 수
학문제 풀다가 잃어버린 감수성이 급세 되살아날 테
니까요.....혹시나 “그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미술관에 가?” 라고 말하는 어린이들이 있나
요?.....그런 친구들을 위해 보다 쉽게 미술
의 세계로 안내하고 화가들의 작품세계까지 소개하
는 책들을 준비했습니다.....미술관 가기 전
에 참고하세요!

< 4월, 미술관 나들이 갈 때 챙겨주세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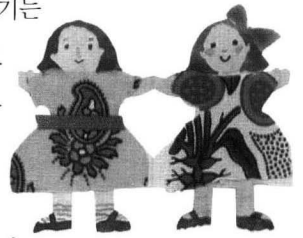
모네 마을에 간 샬롯
존 맥페일 나이크 글·멜리사 스위트 그림 |

오속은 옮김 | 웅진닷컴 | 68쪽 | 값 8,500원

누군가의 일기장을 훑쳐보는 것은 좋지 않은 행동이
지만 샬롯의 일기장만은 꼭 읽어보라
고 권하고 싶어요. 100여 년 전 지베르
니 마을에 살았던 미국인 소녀 샬롯의
일기장에는 43년 동안 지베르니 마을에
살았다는 모네와 모네의 영향을 받은 인
상과 화가들의 작품이 특별한 형식으로
소개돼 있거든요. 샬롯은 인상과 화가들의 화풍을
배우려는 아버지를 따라 지베르니에 왔어요. 그리
고 그곳에서 채소밭을 일구고 과일을 거둬 잼과 케
이크를 만들며 매우 특별한 경험들을 하지요. 이 책
은 이런 샬롯 옆에 인상과 화가들의 그림을 걸어놓



습니다. 샬롯이 모네 할아버지 딸의 결혼식에 간 날
에는 모네의 <결혼 행렬>이 있고, 샬롯이 살 집에 대
한 얘기가 나올 때는 <지베르니 화실 창에서 본 풍
경>이 소개돼요. 샬롯의 일기는
미국인 화가 '시어도어 로
빈슨'과 화가인 '줄리 마
네'의 일기를 토대로 써나
간 것인데 친구들의 데이
트 장면을 목격한 이야기며
두고 온 친구를 그리는 마음까지 마치 진짜 실존했
던 인물이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을 전해 듣는 것 같
은 느낌을 담은 일기장이라 읽고 또 읽고 싶은 마음
이 생기지요.



우리는 샬롯의 일상과 생각들을 담은 일기장
을 펼쳐보면서 모네 할아버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만
날 수 있어요. 샬롯은 시종일관 모네 할아버지를 관
찰하는데 그림이 잘 안 될 때 물감을 집어던지며 괴
팍한 성격을 드러내지만 딸을 극진히 사랑하고 샬롯
에게 '양귀비 씨앗' 까지 선물하는 따뜻한 마음까지
보여주는 분이지요. 또한 인상과 화가들의 화풍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 '빛과 공기, 색에 대한 아빠의
인상을 그리는 것'이라는 샬롯 아빠의 이야기를 통
해 빛에 의해서 달라지는 풍경의 모습을 그린 인상
파만의 고유 화풍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어요. 19
세기에 풍류를 즐기던 화가들의 모습부터 이를 정리
하는 샬롯의 아기자기한 일상 이야기까지. 그리고
샬롯이 가장 좋아한다는 라르송에 테르미네(수업
끝났어요)와 같은 프랑스 말까지 알려주는 유용한
책이랍니다. 유명 화가들의 작품 말고 멜리사 스위
트 선생님이 그린 그림들을 보는 재미까지 줍니다.

화가 몰 아저씨 이것이 정말 그림인가요?
요아힘 쾨네퍼 글·노르만 뮈에 그림 | 노성두 옮김

| 달리 | 32쪽 | 값 9,000원

미술관에 가면 “도대체 이게 뭘 그린
거지?” 할 만큼 알쏭달쏭한 그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요? 이 책에 등장하는
화가 몰 아저씨를 따라가 보면 그나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테니 걱정마
세요. 엉뚱한 토끼 화가 몰 아저
씨는 붓 대신 코로 그림을 그리



고, 캔버스에 망치질을 하고, 당근을 하나 달랑 그려서 걸어놓는 등 매우 엉뚱한 행동들을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유명한 화가 피카소나 폴락 같은 인물들도 이렇게 특별한 그림 작업을 했었어요. 몰 아저씨는 이 유명한 화가들처럼 엉뚱한 작업방식을 보여주면서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팝아트 등 미술사조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아저씨의 행동에 주목하고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그림은 없다는 걸 알게 될거예요. 혹시나 "그림이 너무 어려워"라며 부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다면 아이들을 닮은 천방지축 화가 몰 아저씨와 신나게 놀면서 어려운 미술사조들을 이해하는 기회를 선사해 주세요.

동그라미를 사랑한 피카소



김민지 지음 | 파랑새어린이 | 90쪽 | 값 9,000원

입체파로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알고 있겠죠? 이 책은 피카소의 삶과 그림 이야기를 재미있는 동화 형식



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엄마의 초상을 그려 오라는 미술숙제를 받고, 들판에서 고민하던 '나'는 우연히 대머리 아저씨를 만나는데 아저씨는 동그라미를 그려 보이며 피카소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세요. 파리 빈민가를 배경으로 빈민층을 그리며 청색 물감을 사용했던 '청색시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 따뜻하고 아름다운 분홍빛 색채를 주로 사용했던 '장밋빛시대' 등 피카소의 삶과 연관성을 갖는 예술세계가 친절하게 소개됩니다. 특히 동화 형식

을 빌어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 극적인 재미까지 주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슬플 때는 동그라미도 슬프게 보이고 기쁠 때는 동그라미도 웃고 있을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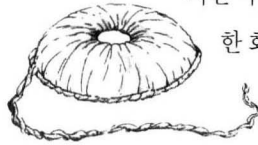
이라는 동그라미 이야기와 피카소의 그림세계를 재미있게 연관지은 독특한 책입니다.

김기창-바보 그림의 화가




최병식 지음·이상규 그림 | 길벗어린이 | 38쪽 | 값 7,500원

우리는 해외 유명화가의 이름과 그림에 익숙해져 있지만 우리나라에도 자신만의 독특한 화풍을 완성한 화가들이 많습



니다. 지금 소개할 김기창 화백도 그런 인물 중 하나

예요. 김기창 화백은 만 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세종대왕 초상을 그린 분이지만 실제로는 익살스러우면서도 천진난만한 '바보' 테마의 그림을 더 많이 그렸습니다. 아마 어린이 여러분들도 그 그림을 앞에 두면 금세 재밌는 바보 캐릭터에 매료될 거예요. 이 책은 자연 그대로의 순박함을 갖고 있는 바보 그림을 그렸던 김기창 화백의 생애와 작품세계를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도 열심히 꿈을 향해 나아갔던 이야기가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할 것 같네요. 그 행복해 보이는 그림 속에 장애로 인한 아픔을 숨겨 놓은 화가의 삶을 상상하면서 예술의 가치와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보세요. 

김청연 기자

